

BTS, 대중예술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끈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BTS, 인문학 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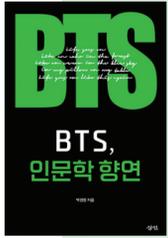
박경장 지음

‘입덕’이라는 말이 있다. 기성세대들에게는 생소한 용어다. 특정 분야, 유명인에 대해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BTS에 입덕했다는 말은 ‘방탄의 덕후가 된다’는 의미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K컬처라는 한류의 물결은 우리나라를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세웠다. 그 가운데 K팝의 영향력은 지대해데, 그 선봉에 바로 BTS(방탄소년단)가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대중음악 시장은 영미 팝의 독무대였다. 영어 가사가 아니면 명암을 내밀 수 없을 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한두 곡이 잠시 인기를 끌 수는 있었다. 그런 세계 대중음악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이들이 바로 BTS였다.

BTS는 세계 문화 한류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데뷔 3년만에 기네스 월드 레코드 공식 기록에 오를 정도로 세계 음악 차트를 석권했다. 미국의 모 TV 프로그램에서는 BTS 특집을 편성해



비틀즈가 환생한 것처럼 무대를 꾸밀 정도였다. BTS 팬덤을 지칭하는 말을 ‘아미’라 한다.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아미가 된 이후 변했다고 전한다. 즉 “무기력

고, 세상 밖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그 문제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며,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덕후’와 인문학자 BTS의 음악세계를 조명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박경장 성프란시스대학 작문 교수의 ‘BTS, 인문학 향연’은 BTS의 음악과 예술을 인문학적 시각으로 조망했다. 영문학 박사이자 문학평론가로 활동하는 저자는 어떻게 BTS에 빠져들게 됐을까.

한류를 연구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점점 BTS 음악에 매료되었다. 저자에 따르면 잠깐 발을 담그려 했다가 어느 순간 목까지 잠기고 말았다는 것이다.

저자는 2020년 1월 그래미 어워드 공식 홈페이지에 실린 ‘BTS 현상’ 5가지를 소개한다. Ana Monroy Yglesias가 작성한 기사는 흥미롭다. ‘BTS는 세상을 뛰어넘는다’, ‘우아하게 경계를 가로지른다’, ‘일곱 명의 멤버 모두가 그룹에 독특한 재능을 부여한다’, ‘그들의 음악은 팬들에게 진정성을 느끼게 한다’, ‘BTS는 그들의 ARMY를 가

쪽으로 여긴다’가 그것이다.

이 같은 분석은 미국 주류 팝 음악을 이끌 대표인 BTS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저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BTS음악에는 인문학이 투영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문학자의 시선으로 분석한다.

“BTS의 ‘에피 파니(Epiphany(顯現))’는 조이스 소실미학의 핵심이론이고, BTS의 ‘시차(parallax)’는 소설의 끝이라고 평가되는 조이스의 대작 ‘율리시스’의 주요 유도동기(leitmotif) 중 하나다. BTS 뮤비들을 짜자가는 서사와 구조에서 조이스의 ‘내적독백’과 ‘의식의 흐름’ 서술 기법을 수없

이 마주쳤다. 방탄의 강물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BTS의 음악에서 내 석박사 논문이 소환되니 어찌 목까지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자는 제임스 조이스 외에도 영문학 대가들의 작품이 BTS음악, 뮤직비디오, 가사들에 일정 부분 투영돼 있음을 주목한다. 어떤 앨범에서는 엘리엇의 시 ‘J. 프레드 프루프록 연가’의 상반된 독백의 방식을, 뮤직비디오에서는 시 ‘황무지’에 드리워진 몽타주 기법을 짚어내기도 한다.

아울러 박 박사는 지난 60년대 유럽에서 촉발한 ‘수용미학’의 관점에서 나아가 80년 미국의 ‘독자

반응비평’의 시각에서 BTS와 아미의 관계도 살펴본다. 그는 “BTS음악은 전 세계 아미들의 적극적인 해석에 의해 끊임없이 새로 태어나고 자란다”며 “BTS와 ARMY를 기점으로 대중예술의 생산자와 소비자(수용자) 사이의 일대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고 있다”고 언급한다.

오늘의 BTS가 있기까지의 여정을 인문학적 시각과 덕후의 시각, 연구자의 관점으로 풀어낸 해석은 흥미로워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삼인·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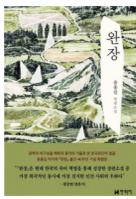
K컬처로 대변되는 한류의 물결은 우리나라를 문화강국으로 우뚝 세웠다. K팝으로 한류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BTS.

/연합뉴스

완장

윤흥길 지음

부동산 투기로 졸부가 된 최 사장은 넘겨져서 사용권을 획득하고 양어장을 만든다. 그는 저수지 감시를 이국리 한량 암종술에게 일임한다. 얼떨결에 완장을 두른 종술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다. 마을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하무인의 행동을 일삼는다.



한국문학의 고전 윤흥길의 ‘완장’의 줄거리이다. ‘완장’ 출간 40주년을 기념해 특별판이 출간됐다.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박힌 권력의식에 대한 작가의 예리한 통찰이 돋보이는 소설이다.

“작가인 나를 일개 미물 같은 존재로 전락시킨 거대 권력에 효과적으로 보복하는 길은 역시 작가의 펜을 무기 삼아 권력 그 자체를 우스꽝스럽게 짚어 없애는 물건으로 회화화함으로써 실컷 아우르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

작가가 출간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판에서 한 말이다. 독재 정권의 검열을 피하기 어려웠던 시절, 작가는 풍자와 해학을 매개로 문제의식을 정치하게 녹여냈다. “이 소설을 씀으로써 나는 비로소 실의와 자기자신을 믿고 재기할 수 있었다”는 말에는 작가로서의 자존감, 작가로서의 책무 등이 담겨 있다.

작가는 소설에서 완장을 두른 뒤 급격히 변모해버린 한 인간의 삶을 통해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날카롭게 그려낸다. 결국 ‘완장’은 권력을 회화화하는 상징물이자 그 권력을 정취하기 위해 약전고투하는 인간의 본성을 대변한다.

황중연 평론가는 “완장은 현대 한국의 속어 혁명을 통해 성장한 장편소설 중 가장 희극적인 동시에 가장 진지한 인간 사회의 우화”라고 평한다.

한편 작가 윤흥길은 지난 196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회색 면류관의 계절’로 등단했으며 반세기가 넘는 지금까지 창작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현대문학·1만6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완전 소화

류은경 지음

“소화불량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염증부터 혈압과 당뇨, 다이어트, 암까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내 몸의 독소를 없애는 법이 담긴 건강서 ‘완전 소화’가 출간됐다. 국립암센터와 서울대 의학연구원에서 신약 개발을 하던 연구원에서 예방 의학 전문가가 된 류은경 완전해독연구소 소장이 20년 이상 의학계에 몸담으며 연구해 온 정수를 담은 책으로 2018년 출간한 ‘완전 소화’의 개정증보판이다.

류 소장이 ‘완전 소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소화불량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대사산물이 독소가 되고, 독소는 염증을 만들기 때문이다. 당분은 당뇨병의 원인이 되고 단백질의 대사산물인 요산은 통풍의 원인이 되고 우유의 베타-락토글로불린은 면역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만병의 원인이 먹는 것에서 시작한다면, 다시 먹는 것을 통해 나아질 수 있다”며 “책의 목적은 밥과 빵, 고기 위주의 식사로 심각한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인 현대인의 식습관을 개선하는데 있으며, 그 해결책의 중심에는 과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책은 1장 ‘나는 왜 늘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붓는 걸까?’, 2장 ‘위(胃) 건강법: 소화가 잘되면 몸이 살아난다’, 3장 ‘간(肝) 건강법: 이렇게 먹으면 간세포도 재생된다’, 4장 ‘장(腸) 건강법: 장내 독소 제거, 배나뎀이 면져라’, 5장 ‘췌장(膵臟) 건강법: 한국인 맞춤 건강법’으로 나눠 소개한다.

부족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과일 조합, 과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단계별 5주 식단, 최고의 과일·자연식 일주일 식단, 장수하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4가지 습관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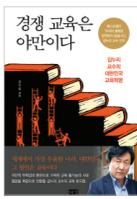
〈다산리프·2만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김누리 지음

“경쟁 교육은 야만적인가”라는 질문에 선뜻 답할 수는 없다. 마치 프랑스 논술시험 ‘바칼로레아’처럼 정해진 정답이 없는 필러마적 질문이기 때문이다. 상위 대학 진학을 위해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풍조는 교실을 혼돈에 빠뜨리지만, 동시에 경쟁 없는 사회는 다같이 도태될 뿐이다.



이 같은 화두를 던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책이 나왔다. 베스트셀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등으로 이름을 알렸던 김누리 교수의 신작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는 한국사회에서 ‘경쟁교육-야만’의 등식이 성립되는 뿌리 깊은 이유를 분석한다.

독일 브레멘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누리 교수는 현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및 동 대학원 독일유럽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독일 대학에서도 이와 똑같은 우리처럼 의대가 인기가 좋습니다. 거의 모든 의대, 치의대, 수의대, 약대는 NC학과입니다. 학생들이 몰려 정원제한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경우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정의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독일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자는 독일사를 연구했던 경험으로 한국의 ‘경쟁 교육’ 문제를 들여다본다. 한국에서도 최근 ‘뜨거운 감자’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정원 제한은 유럽에서도 있는 일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자유권’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저자는 교사들의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야만의 트라이앵글’이 공정 이데올로기와 맞물린 지나친 경쟁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불평등을 양산하는 ‘경쟁’이란 ‘인간적 교육에 반하는 원리(아도르노)’라며, 경쟁에 매몰되지 않는 방안을 주장한다.

〈해냄·1만85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그린알로에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